

# 스트라이크 기쁨만큼 커가는 '동료애'

##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도모

국내 보급 초창기 때의 볼링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 직장인들이 즐기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운동으로 여겨졌다. 더구나 혼자 배우기도 어려워 혼자 볼링장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점차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볼링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간파한 많은 회사들은 직장인들의 볼링에 대한 관심 증폭에 편승(?)하여 볼링 동호회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직장 내 볼링 동호회 열풍이 몰아치던 무렵, 신호제지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각 사업장에서 볼링동호회가 구성됐다. 물론 신호제지 볼링 동호회의 설립목적은 직장생활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의 해소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있다. 이를 위해 신호제지 각 동호회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다.

볼링연합회, 7개 사업장 100여명 활동 초창기 설립 당시 레인 위에 섰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염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조심스러웠던 신호제지 볼링 동호회원들은 이제 그 실력이 각 소속사업장을



볼링연합회는 홍익배 볼링대회를 매 분기마다 각 공장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은 보다 잦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질감과 소속감을 더욱 고취할 수 있게 됐다.



대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외부 주최의 공식 볼링대회에서도 당당히 입상하는 실력자들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신호제지에서는 7개 사업장에서 10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신호제지는 각 사업장의 볼링동호회가 볼링동호회연합회라는 하나의 조직체로 묶인 특징이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에서 본사 주최로 개최된 '홍익배 전사 볼링대회'가

계기가 됐다. 처음 개최된 '홍익배 볼링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이 처음에는 약간 서먹해 했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에 빠져들게 됐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각 사업장에서 참가한 동호회원들은 상대 선수가 기록한 스트라이크에도 함께 기뻐하는 것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호제지 한가죽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이후 2001년에도 대회가 이어지



신탄진 공장 동호회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모임을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자 각 사업장 볼링동호회원들 사이에서 '각 사업장별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를 통합하여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 만들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각 동호회원들의 바람에 따라 각 사업장의 볼링동호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지난 2002년 1월에 본사 기획팀의 최귀선 차장을 회장으로 하는 '신호제지 볼링연합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 홍익배 볼링대회 분기별 순회

창설 후 볼링연합회는 그동안 본사 주체로 1년에 한번 개최되었던 홍익배 볼링대회를 매 분기마다 각 공장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각기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들은 보다 잦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질감과 소속감을 더욱 고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최귀선 차장은 "신호제지 볼링연합회의 정기대회가 열리는 날, 개최지역 볼링경기장에 회원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신

호제지의 로고가 새겨진 대회 현수막, 회원들간의 반가운 인사, 진행요원들의 발빠른 준비 등 모든 것들이 회원들을 한마음, 한가족으로 만든다. 하지만 본 경기가 시작되면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사업장을 대표한다는 마음에 강한 승부근성이 발동,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기를 펼친다.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는 하이파이브 함성과 박수소리는 여느 다른 공식대회 못지 않은 연합회의 축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가 끝나면 승자에게는 축배의 잔을, 패자에게는 위로의 악수를 청하는 회원들의 우정은 정기전이 단순한 경쟁의 자리가 아닌 모두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 부산 MBC 전국직장인 대회 입상

볼링연합회는 그동안 정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를 대외 공식경기인 부산 MBC 전국직장인대회에 출전토록 해왔다. 출전했던 대표 선수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함으로써 신호제지의 이미지를 부산, 경남

지역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렇듯 연합회 활동은 직원들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 사업장간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그리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신호제지 최대 행사로 키웠으면

최귀선 차장은 "정기 분기대회를 신호제지 최대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전 직원에게 확대할 예정이다"며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다음카페에 '신호제지 볼링연합회 쉼터'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처음엔 볼링이라는 매개체로 맺어졌지만 어느덧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발전한 신호제지 볼링동호회. 이들로 인해 신호제지가 더 활기찬 회사로 거듭남은 물론, 국내 제지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갑준 기자〉